
개 관

금융안정 상황 및 리스크 평가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하반기중 신용 레버리지 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¹⁾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월중 크게 상승하였던 금리가 11월 들어 연준의 긴축기조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중 주기도 하락 후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4분기중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동 없이 원활하게 재예치되고 있다.

다만, 높아진 금리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하반기중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²⁾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을 높이

고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경기 부진과 소비 회복지연 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업종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아 채권 및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주택가격은 3/4분기중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전망 등 시장참가자의 기대 변화와 매수심리 변동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보험회사인 회계기준(IFRS17) 적용의 영향이 지속되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산건전성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악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유출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및 업황 전망 등에 영향을 받아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출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1)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2023년 11월 19.3(주의단계)으로 지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 당시(24.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2023년 1/4분기 46.3에서 3/4분기 41.5로 하락하여 장기평균 수준(38.1)에 근접하였으나,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모든 업권에서 고정 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단기외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및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그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LTV, DSR 규제 등을 통해 담보 가치와 차주의 신용 및 소득구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의 채택으로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대응역량이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는 점 등이 금리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바³⁾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불안, 새마을금고 자금인출 사태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한 점도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회복세 약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주요 이슈를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 부문의 부채 급증 배경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 결과⁴⁾,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였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과거 위기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들의 이자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된 점은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신용의 단기조달 비중이 높아진 만큼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차환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등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금리상승기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운용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⁵⁾, 조달 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예금유입이

3) Economist誌는 5개 경제·금융 지표(근원물가상승률, 2%이상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 비중 변화, 성장률, 실업률, 주가)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2022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경제 성과를 측정해 결과, 우리나라를 2위로 평가하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Finance and economics Section, Economist誌, 2023년 12월 17일).

4)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확대되면서 예금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예금만기가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도한 예금조달 경쟁은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운용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건설·부동산업 대출 등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기대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정책 대응 방향

우선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기업 부실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채무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자산의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총당금 적립 등에 있어 은행에 비해 다소 느슨한 부분을 보완하여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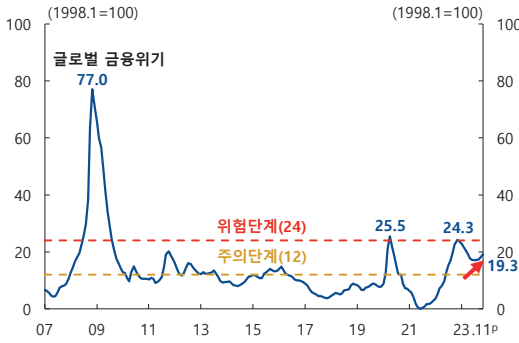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악화시 유동성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비은행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높이고 적기 조치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등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 기업,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금융안정 주요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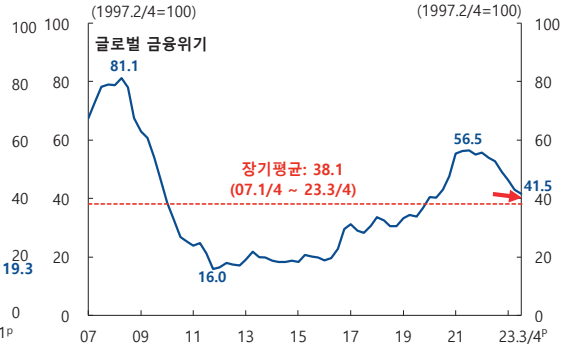
1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단기적 금융불안(FSI) 소폭 상승, 중장기적 취약성(FVI) 하락폭 축소

금융불안지수(FSI)



자료: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F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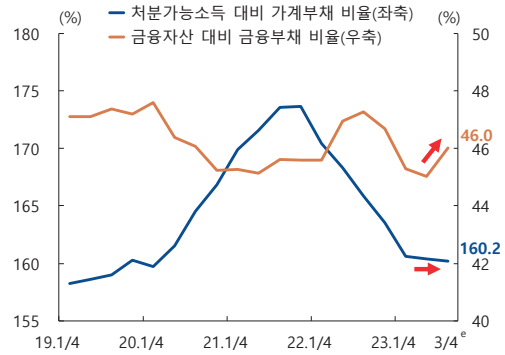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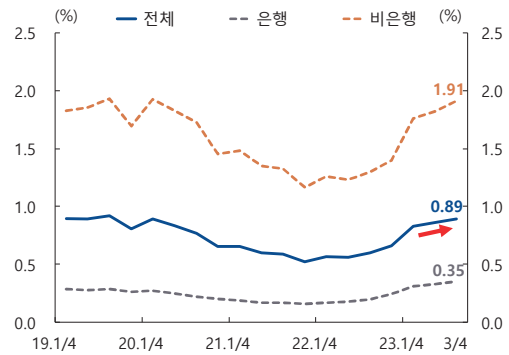
가계 채무상환부담 소폭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채무상환부담 지표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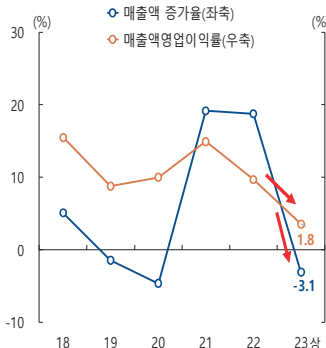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3 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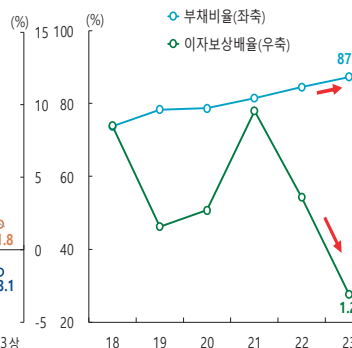
기업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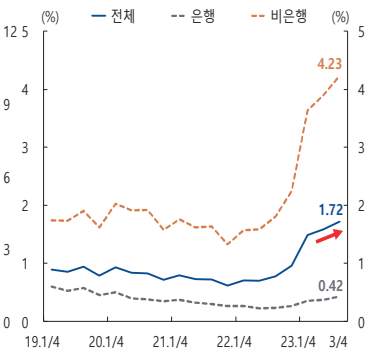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기업 안정성 및 이자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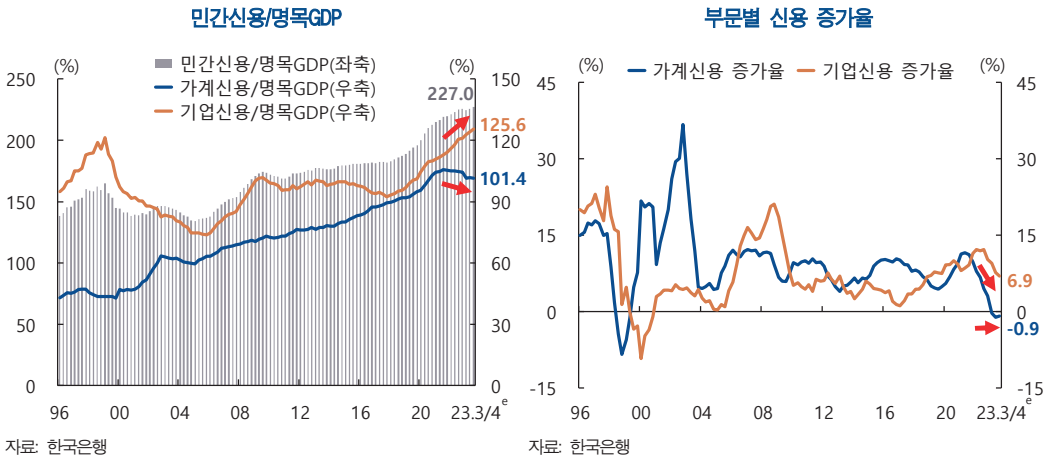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기업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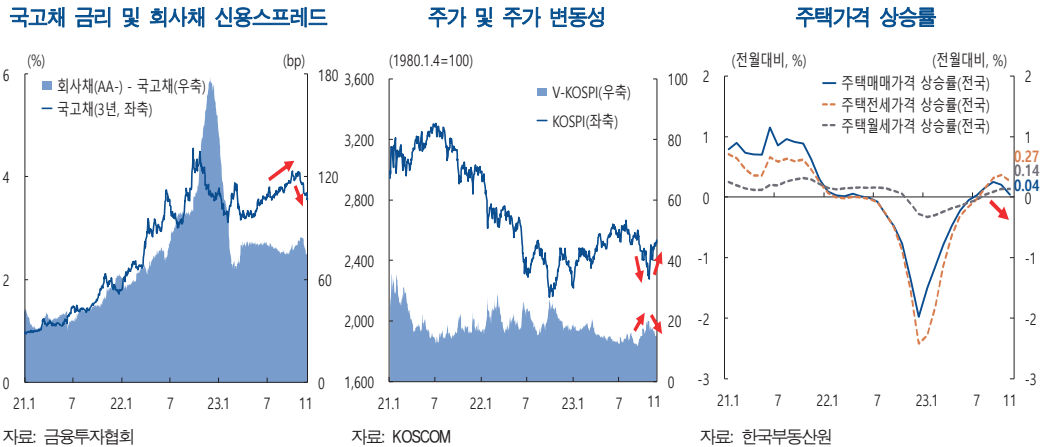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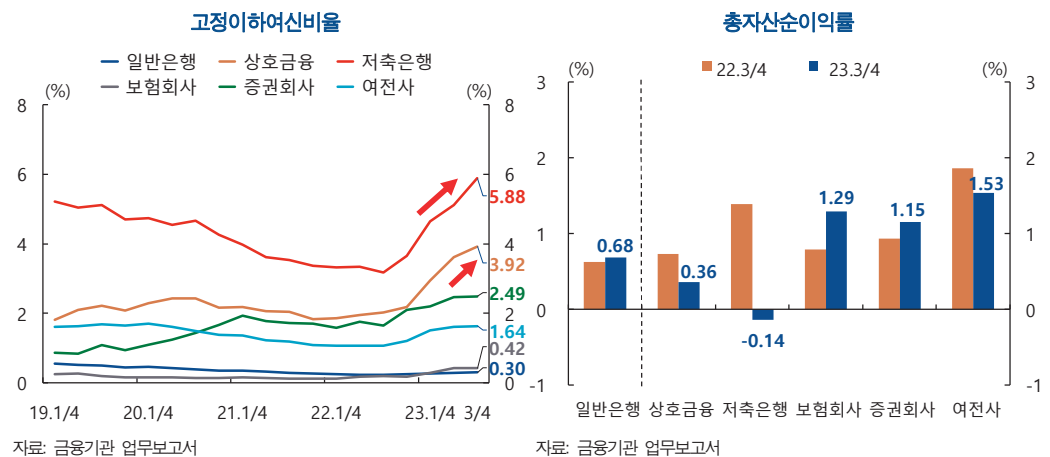
④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 가계신용 감소폭 축소, 기업신용 증가폭 축소



⑤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 상승 후 하락, 주가 하락 후 반등,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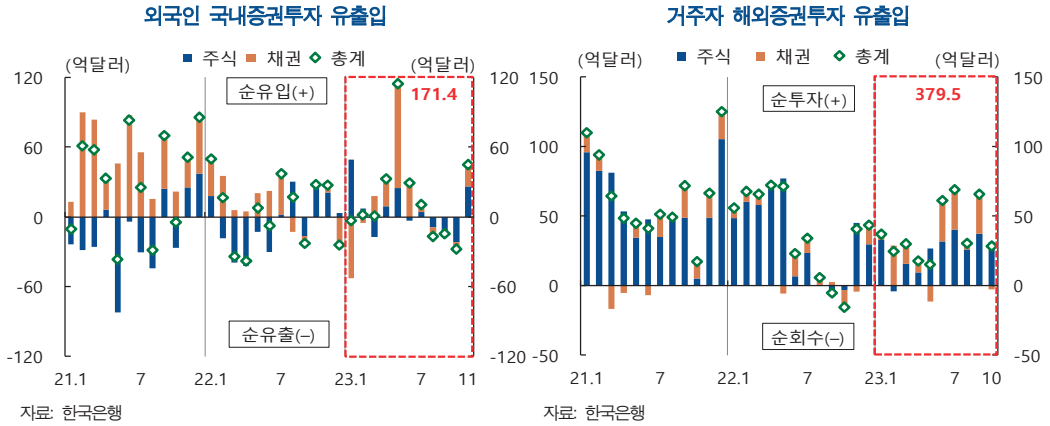


⑥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수익성 업권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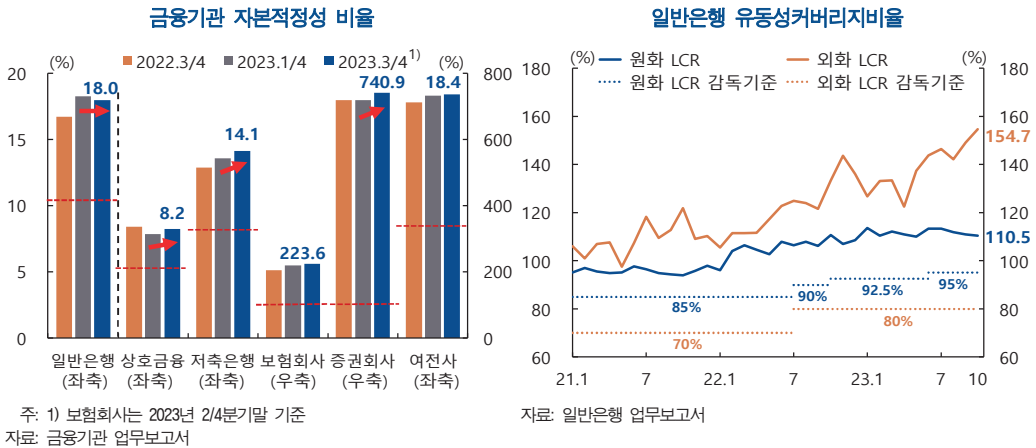
7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소폭 확대



8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양호



9 대외지급능력 및 지급결재시스템

대외지급능력 대체로 양호, 결제리스크 안정적 관리

